

일본 중소기업 기업승계 문제와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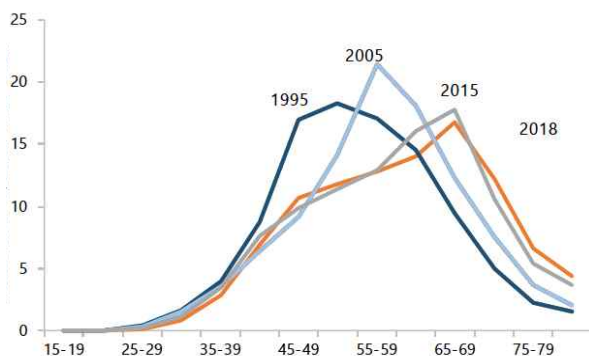
손재희 연구위원, 김윤진 연구원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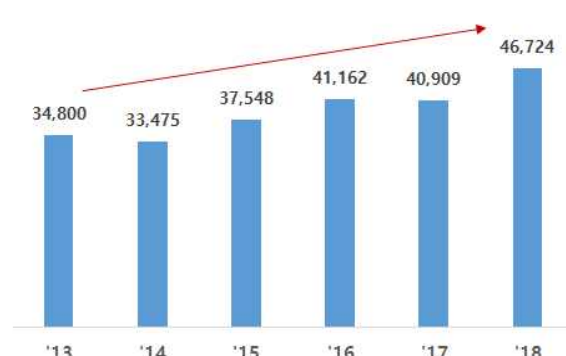
일본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기업승계 문제가 코로나19 이후 경영환경 변화로 더 악화됨. 일본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민간기업도 중소기업 기업승계 관련 사업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음. 특히, 일본 대형 금융회사들은 지속가능경영 관점에서 중소기업 기업승계를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함. 국내 중소기업도 창업세대 고령화로 인해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상황임. 국내 금융회사는 기업승계 문제를 비즈니스 모델화하여 해결하고 지원을 다양화한 일본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일본에서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기업승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

- 2019년 일본 경제산업성 보고에 따르면 일본 중소기업 경영자 연령별 분포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연령은 1995년 47세에서 2018년 69세로 증가했고(〈그림 1〉 참조),¹⁾ 2025년이 되면 일본 중소기업의 60%는 70세 이상 경영자에 의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에서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은 고령 경영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중 후계자를 찾지 못하여 폐업·영업 중단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임²⁾
 -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약 63만 개의 중소기업이 폐업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1,650억 달러, 약 650만 개의 일자리 손실에 해당함

[illegible]

자료: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2019. 10), “2019 White Paper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Japan”



자료: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2019. 10), “2019 White Paper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Japan”

1)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2019. 10), “2019 White Paper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Japan”
2) NYT(2023. 1), “Japan’s Business Owners Can’t Find Successors”

○ 일본 정부는 2017년 사업승계 문제 해소를 위한 5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경영인의 고령화 및 후계자 부재에 따른 기업승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 일본 중소기업은 일본 전체 기업의 99.7%, 전체 일자리의 69%를 차지³⁾하는 등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의 근간이기 때문에 경영인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에 따른 사업승계 실패 혹은 사업 중단은 중요한 국가적 문제로 인식됨
- 이에 일본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승계를 위해 펀드 조성, 법률 제정 등의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2017년 경제산업성 산하 중소기업청은 사업승계 5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소기업 사업승계 지원을 강화함⁴⁾
 - 5년 계획 세부 사항으로는 ① 금융전문가를 통한 기업 진단 및 교육, ② 사업승계 지원센터 설립, ③ 사업승계펀드 지원 대상 중소기업 정책 지원(2019 세제개혁), ④ M&A를 통한 등록면허세 및 부동산취득세 감면(2018 세제 개혁) 등이 있으며, 후계자가 이미 정해진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입유예 비율을 100%로 확대함
-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 및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고령 경영인의 자발적 사업 중단 비중이 높아짐⁵⁾
 - 일본 경제산업성 연구소는 중소기업의 폐업·영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적기에 사업을 승계해야 함을 설명하며, 이를 위한 지역금융기관의 재무·비재무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함⁶⁾

○ 이에 민간 기업들은 중소기업 기업승계 문제를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이를 위한 M&A 중개나 종합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M&A 중개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혁신기업들이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기업들은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이라는 위기를 신사업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함
 - 1991년 설립된 Nihon M&A Center는 2006년 중소기업 M&A 중개 기업으로 최초 상장 후 꾸준히 성장하여 2022년 413억 엔의 매출을 기록함
 - 2018년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M&A Research Institute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M&A 기간·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사업승계 기업과 인수기업을 효율적으로 매칭⁷⁾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2022년 상장에 성공함
- 일본 주요 은행 등은 금융기관으로서 보유한 역량과 함께 혁신기업들과 협업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경영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함
 - 미즈호파이낸셜그룹은 2021년 개인 고객 약 2,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사업승계와 관련된 재무적·비재무적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SBI Bank는 은행의 금융노하우 및 외부 파트너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승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 Shinsei Business Succession을 운영함⁸⁾
 - 보험회사 중 도쿄해상은 기업승계 세미나를 주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Nihon M&A Center와 파트너십을 통해 후계기업 매칭 서비스 제공하며, 인수 이후 진술보장 내용 위반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는 등 기업승계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⁹⁾

3) OECD(2022. 3), "Financing SMEs and Entrepreneurs 2022: An OECD Scoreboard"

4) Gee Hee Hong, Arata Ito, Yukiko Umeno Saito, Anh Thi Ngoc Nguyen(2020. 9). "Structural Changes in Japanese Firms: Business Dynamism in an Aging Society"

5) Gee Hee Hong, Kikuchi Shinnosuke, Yukiko Umeno Saito(2020. 7), "What Are the Effects of the COVID-19 Crisis on Firm Exit in Japan?"

6) Yanomori Nobuyoshi(2021. 2), "Overcome the Coronavirus Crisis and Seize the Opportunity for Business Succession", RIETI Article

7) FY2023 기준 1년간 총 137개의 딜을 완료하였고, M&A 한 건당 평균 기간은 6.6개월이 소요됨

8) Mizuho Integrated report 2022; 新生事業承継 홈페이지(<https://www.shinsei-js.com/>)

- 글로벌 사모펀드사들도 잠재적 가치를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바이아웃딜(Buy-out deal)¹⁰⁾ 기회를 주시하여 인수를 추진하거나 중소기업 기업승계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면서 일본 중소기업 M&A 시장을 활성화함¹¹⁾

- 한 예로 2020년 사모펀드사 Bain Capital은 일본의 요양서비스 선도 기업 Nichii Gakkan를 설립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12억 달러에 인수하였고, 2021년에는 약 10억 달러에 가까운 중견기업 기업승계 펀드를 조성함

○ 국내 중소기업 역시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새로운 세대로 기업을 승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기업의 수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승계를 위한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국내 중소제조업 대표자의 평균연령은 '21년 기준 54.8세이며, 60대 이상 비중이 '10년 13%에서 '21년 약 32%로 10여 년 사이 2.5배 증가함¹²⁾
- 국내 중소기업 중 약 61%가 사업승계 방법으로 자녀승계를 계획하고 있으며, 막대한 조세부담의 우려, 기업승계에 대한 정부정책의 부족, 후계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의 부재로 기업승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¹³⁾
- 중소기업이 적절한 때 승계되지 못할 경우 투자 위축 등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폐업할 경우 일자리 소멸, 축적된 기술 및 경영 노하우의 소실 등 국가 경제의 큰 손실로 작용할 수 있음

○ 국내 금융회사 역시 중소기업 승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주로 기업승계를 위한 세무 컨설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등 자금지원이나 관련 공공행정서비스 안내 제공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국내 은행은 기업고객 유치와 수수료 수익을 기대하며 사업승계신탁 상품 제공, 유산정리, 기업승계 등 상속, 증여 세무 상담서비스, 기업매각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으며, 증권사의 경우 2019년 이후 중소기업 종합 컨설팅 전담 조직을 마련하여 기업별 맞춤형 기업승계 절세안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보험업권의 경우 상속세를 대비한 경영인 정기보험을 판매하거나 대형사 및 독립판매사가 법인영업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 기업승계 컨설팅, 상속설계, 세무설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향후 중소기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승계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국내 금융회사는 지속경영 관점에서 지원을 다양화하고 비즈니스 모델화한 일본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 최근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시 세액공제 대상액을 상향 조정하는 정부의 발표(2023 세법 개정안)나,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승계와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발표¹⁴⁾는 이러한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중소기업 사업승계 지원은 정보 및 자금 활용의 접근성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돕는 상생경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으며, 보험업도 이를 보험 비즈니스 모델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9) Tokio Marine Annual Report(2021; 2022)

10) 기업의 경영권 교체 및 소유권 구조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피인수기업 지분을 인수하여 회사를 소유하게 됨

11) FT(2022. 4), "The pervasive succession crisis threatening Japan's economy"; Nikkei Asia(2021. 4), "Bain creates \$1bn business succession fund focused on Japan"

12) 중소기업실태조사, 각 연도

13) 2022년 중소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14) IBK 기업은행의 중소기업의 승계와 사업재편을 위한 500억 원 규모 펀드 조성 발표(2023. 9)